

대출 거절되면 2금융 소개... 시중은행, '연계대출' 확산

은행, 중개 수수료로 추가 수익
계열사 시너지 제고에 락인효과도
제휴사, 공급채널 확대로 '윈윈'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차주를 제2금융권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은행은 중개수수료 등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제휴사는 대출 공급채널을 확대할 수 있어 서로 실익을 얻는 윈윈(Win-Win)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윈스톱 연계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윈스톱 연계대출 서비스는 우리WON뱅킹에서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신청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고객에게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곳의 제휴사 대출상품을 안내해 주는 서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앱 내 '제휴사 대출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윈스톱 연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WON뱅킹 앱

비스다.

제휴사 대출상품은 모바일 뱅킹 앱인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앱 내 '제휴사 대출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출 금리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기존 은행 신용대출 심사에 사용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 환경이 확산함에 따라 연계 대출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것.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심사 미승인 고객을 자사 2금융권 상품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2금융권 제휴사 윈스톱 연계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지난해 10월 연계대출 서비스를 한시 중단했지만 곧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제휴사 선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2금융권 연계대출 서비스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부담을 덜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연 5~6%에서 올해 4~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휴사를 통한 중개수수료 등 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연계대출 1건당 1%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소액의 소개 수수료 등이 은행 측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우리·하나은행의 사례처럼 자사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으로 연계대출을 시행할 경우 금융그룹 차원에서 고객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상으로 락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휴사 입장에서 대출공급창구를 늘려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2금융권 차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진 안정적인 차주 유입이 가능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면 채널에서 이뤄졌던 연계대출이 모바일 등 비대면에서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은행이 모든 대출 수요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연계된 제휴사를 통해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차주, 은행, 제휴사 등 각 주체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권소환 기자 think@metroseoul.co.kr



생보협회 “디지털 혁신 촉진하고 신시장 개척”

정희수 생보협회장, 간담회서 포부
위기 극복 위한 3대 핵심과제 선정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이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촉진해 우리를 둘러싼 거친 변화의 물결을 생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13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생보 가구가입률은 81.0%로 포화상태에 육박한 반면,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해 생명보험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올해 생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할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생보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마 이데이터 신규 진출, 마이헬스웨이 참여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각종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생보산업 전반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MZ세대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와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생보사의 오픈뱅킹 가입,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헬스케어 등 실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보험금 지급, 자금이체, 결제 등 금융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의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다.

생보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도 강조했다.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

화,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도 지원한다. 시장포화, 저금리,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상품운영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도 나선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생보사 시니어케어 진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의 중요성도 손꼽았다.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신 회계제도인 IFRS17과 신 건 전성제도인 K-ICSG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당국의 세부기준 작업 지원 및 업계의견 건의 등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Sh수협은행, 3기 신도시 공익수용 토지보상 전담팀 출범
Sh수협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별관에서 3기 신도시 공익수용 토지보상 전문 통합금융서비스를 전담할 'Sh토지보상 드림(Dream)팀 2기'를 출범했다. ▲세무와 법무 ▲감정평가 ▲여신심사 등 9명의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Sh토지보상드림팀 2기는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거점 영업점과 협업체를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Sh수협은행

신한銀, 기업 'ESG 컨설팅' 조직 신설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신한은행은 기업고객이 ESG 경영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ESG 컨설팅 셀'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ESG 컨설팅 셀'은 ESG 전략컨설팅트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과 ESG에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ESG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제안을 통

한 참여유도 ▲기초컨설팅을 통한 진단 및 평가 ▲심화컨설팅으로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이행지원 순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ESG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고객에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환 금융상품 등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고객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2050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강도 규제 약발... 가계대출 감소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 2000억 ↓
12월 기준 사상 최초 감소

은행 가계·기업대출이 소폭 줄어들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12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1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축소됐다.

기타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대출금리 상승, 연말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전월 2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둔화,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으로 증가규모 축소 등에 따라다.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됐지만 주택매매거래 둔화,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줄면서다.

한은은 "12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해 1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며 "기타대출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1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감소폭이 두번째로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은 1조7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1조원 줄었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감소 전환했지만 감소폭은 소폭에 그쳤다. 중기 대출은 계절요인 등으로 큰 폭 증가했던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다소 줄었다. 시설자금 수요 지속에도 연말 운전자금 일시상환 등으로 소폭 감소하면서다.

/백지연 기자

우리銀 “원클릭으로 편하게 기부하세요”

우리은행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이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WON클릭 기부함'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WON클릭 기부함'은 수해, 폭설, 지진, 대형화재 등 중대한 재난 재해 발생 시 우리WON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오픈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부된 금액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즉시 전달돼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난 피해 이웃들을 위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권한을 받은 최초의 민간구호단체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